



생명력 넘치는 우리나라 '5일장'

《한국의 시장》
펴낸 전성현씨

깃들어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직 누구도 작성한 바 없는 보고서다. 1권 경기·강원·서울·인천편과 2권 충청남·북도, 대전편이 최근 출간되었고 곧 출간될 3권 전라남·북도, 제주도, 광주편과 4권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편 등 총 4권으로 묶여진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한 5일장의 자연지리와 풍토, 사람들의 생업형태와 거래되는 물산들, 특산물 등 기초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각 시장의 역사와 지역의 문화, 시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장마다 독특한 정경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된다.

시장에 관해서는 간략한 정보지 외에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답사 때에는 장꾼들 틈에 끼여 앉아 때로는 같이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가끔적이면 그 지역에서 자고 먹으면서 분위기를 익히는 등 더 열심히 현장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전성현씨는 이렇게 말한다.

“한 20년 지난 후에 또 누군가 우리들 처럼 미친 척 시장답사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책이 90년대 초반 시장의 모습을 가장 충실히 담아놓은 기록사진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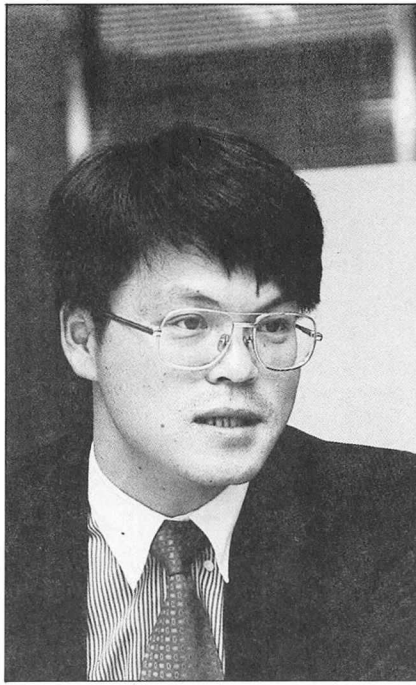


대학시절 틈만 나면 어렵지 않게 문체 불쑥 답사를 떠나곤 했던 서강대 사학과 81학번 동기생인 주영하(중국 유학중), 강재석(공간미디어 편집장), 전성현(대일고등학교 교사) 세사람은 대학 졸업 후에도 한달에 한두번씩은 꼭꼭 문화유산답사를 해왔다. ‘땅과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그들의 답사는 그렇게 5~6년을 넘게 계속된다. 여장꾸리리며 취재, 한 데 잠자기 등 답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아는 선배가 그들에게 시장답사를 제의해왔고, 시장이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문화텍스트가 아니겠냐 싶었던 그들은 여기에 응했다. 《한국의 시장》(공간미디어)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다.

“처음에는 전국을 다 돌 생각도 아니었고 막연히 많은 사람들이 향수로 간직하고 있는 5일장의 모습을 아름답게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답사를 계속할수록 시장이 한 사회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곳임을 절감하더군요.”

좌판에 널린 수입농산물이며 쇠락해가거나 아예 사라져가고 있는 5일장들을 목격하면서 기왕 답사길에 오른 사람으로서 바로 이 시점의 5일장의 모습을 기록해 두어야 할 의무감이 생기더라고 말하는 전성현씨는 그들이 내놓은 이 책을 “90년대 초반의 한국 5일장에 대한 답사보고서”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이 책은 이들이 지난 93년 5월부터 95년 2월까지 근 3년에 걸쳐 우리나라 5일장 250여군데를 답사, 취재하여 각 장의 모습과 특성, 그곳에



인간적인 도시문화를 위한 열망

《미술과 도시》
펴낸 최태만씨

예술가를 포함한 시민의 미적 인식과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미술은 현대사회 시각문화의 대표주자로 그것을 반영하고 또 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부정이 낡은 긍정의 미학인 셈이지요.”

이 책의 미덕이라면 ‘바람직한 도시문화’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다. 인간적인 도시, 살맛나는 터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인식할 것을 당부하는 최태만씨는 이를 위한 미술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미술가들의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역량을, 단순한 협업의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로서의 도시문화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죽음’과 ‘에로스’. 《미술과 도시》가 미술의 사회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두 주제는 미술의 심리학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죽음의 형상이야말로 예술의 에너지가 아니겠느냐며, 먼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들이 정리되는 대로 내년 말쯤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정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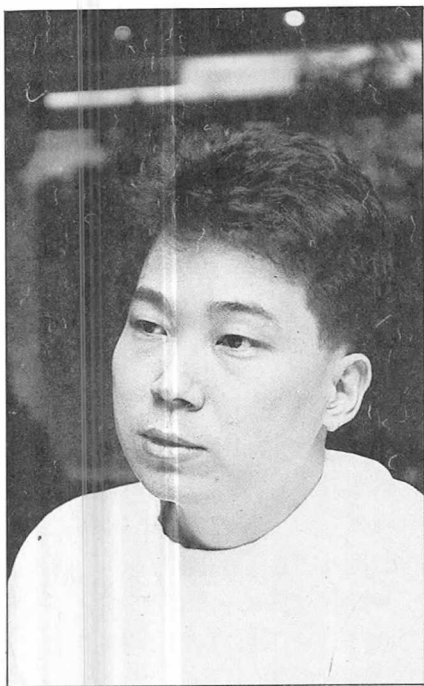
미술이 도시문명 전체의 지형도를 그릴 수는 없다. 그러나 미술작품들의 이미지 속에는 한 시대의 문화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인 최태만씨(34)가 펴낸 《미술과 도시》(열화당)는 ‘예술가의 눈에 비친 도시와 삶’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미술에 나타난 도시의 형상을 통해 인류문명의 역사를 추적하고 현대도시의 문화적 현실을 진단한 책이다.

“미술이 도시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미술가들은 도시가 가진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단, 미술사적 맥락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미술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당대의 시대정신, 풍속, 정치·경제적 배경,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도시문화 전반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절대자나 신의 의지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의 건축양식을 다룬 고대와 중세의 미술,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팽창하고 시민계급이 재편되는 과정을 천착한 근대미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대중매체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를 응축한 현대미술의 세계를 서구 미술작품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의 삶의 풍경을 미술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핀다.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고 문화적 활동을 떠나가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교차하는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의 중심지죠. 인류문명은 도시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화현상’이라는 ‘도시’의 ‘파행과 불구’에 있었죠. 그것은





신세대 저술가의 혁명적인 여성이론

《창녀론》
펴낸 김완섭씨

두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쓴 글들을 PC통신에 올렸던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이 책에는 ‘쪼다와 결혼하는 여자들’ ‘전속창녀’ ‘법원판결’ ‘모든 한국 여자는 창녀다’ 등 기존의 결혼관과 성의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34편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저자는 가족의 기원에서부터 출발, 매춘은 여성이 진화과정에서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이었으며 여성존재의 본질은 매춘에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더 나아가 여성이 한 인간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의 자각이 절실하며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프리섹스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류를 성모순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제 글쓰기는 사랑과 결혼, 여자와 성, 가족문제 등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PC통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겪은 것이 가족과 성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녀론》이라는 파격적인 책을 낸 신세대 저술가 김완섭씨는 앞으로 자연과학 교양서, 정치평론집 등을 낼 계획을 가지고 분주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허연 기자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자들은 대부분 한 남자에게 매달려 사는 전속창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억압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금의 가족제도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가장 보편적인 매춘행위라는 주장으로 PC통신을 통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하이텔 운영진에게 ‘ID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섭(31)씨가 자신의 여성이론을 모아 《창녀론》을 출간했다.

파격적인 여성이론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온 그는 다채로운 생각만큼이나 변화가 심한 삶의 편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대 천문학과 82학번인 그는 광주 출신으로 고등학생이었던 5.18 당시 30여명의 시민군이 전사한 전일빌딩 전투에서 살아남은 단 3명의 생존자 중 한명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부천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개량주의자가 된다. 그후 87년 12월 구로구청 농성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 다음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고 89년부터는 컴퓨터 잡지사 기자, 미국 컴퓨터회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몇권의 컴퓨터 및 자연과학 서적을 저술하거나 번역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책은 PC통신에 올렸던 글들과 책을 내기 위해 새롭게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출판을 염두에



훈장님 눈에 비친 세상 풍경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세상을 보고 웃는다》
펴낸 이정석씨

이정석씨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무지한 채로 국제무대에 나가면 ‘국제상놈’ 소리밖에 더 들겠습니까?”

비록 물질문명에 있어서는 서양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지만 정신문명에 있어서는 서양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문명(물질문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명(정신문명)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대학, 기업체, 방송국 등에서 요청해오는 초청강연 때문에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이정석씨는 올해 후반쯤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책’을 써낼 계획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줄 짙막한 어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어볼 생각도 갖고 있다.

—한동림 기자

청학동 훈장 이정석씨(45)가 수필집을 엮어냈다. ‘청학동에서 내려다본 세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채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 들려주는 청아한 음성이 담겨 있다. 우리네 삶의 모습을 청학이라는 거울 앞에 드러내보이고 일침을 놓으면서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까닭은 오래도록 한학을 수학해온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삶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의 가치, 삶의 가치,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정석씨는 문화를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인간이 무너지면 문화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네 교육은 기술교육, 돈(金) 교육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인간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놀랄 만큼 무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갓쓰고 도포 입은 이정석씨의 모습을 보고 세상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웃는다. 그러나, 그렇게 웃어대는 사람들은 넥타이를 목에 졸라매거나 속살이 흰히 비치는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도 부끄럽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났는지조차 모르고 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